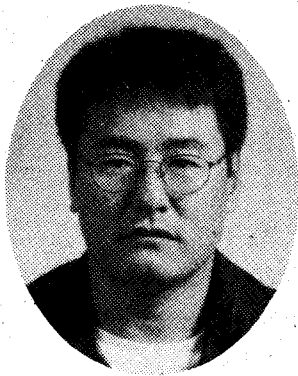


□ 내가 보낸 방학 -동문, 학생, 교수

일상을 벗어나 창조적 자아를 찾자

희망만으로 열정적이던

순수한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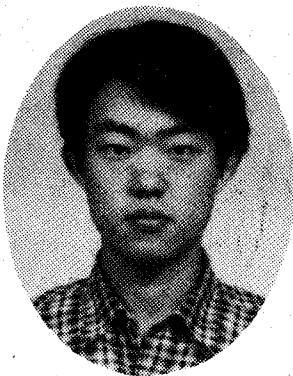
권인하
(음악인)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는 여행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그 시절에는 여행하면 자연스럽게 여름 방학을 떠올리지 않았었다. 물론 가끔 겨울 방학에 여행을 가는 낭만파들도 있었지만 그때의 스키장은 엄청난 부자집 아이들이나 가는 사치성 여행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또 겨울 바다는 숙박비와 식비로 인해 당시로서는 상당한 돈이 드는 여행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오월 중순만 되면 벌써 여름 휴가를 준비하며 설레이곤 했었다. 그때도 이미 제법 노래 가락은 쓸 만했던지 기타 한대만 들고 떠나면 서너명의 친구들과 큰 고생없이 재미있게 지내고 왔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오월 중순부터는 여기저기서 들어 오는 여행 제의로 제법 바쁘게 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지금도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여름 방학은 그런 해마다 있었던 여행이나 휴가가 아니고 대학 가 요제에 나가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던 그 여름방학이다. 대학교 일학년 여름 방학 때이다. 고향 친구들과 함께 40여 일간의 맹 연습을 하던 바로 그 여름방학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 아냐가 싶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칼국수 한그릇으로 버티면서 견뎌냈던 그 시절의 열정과 노력이 내겐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교훈과 경험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지금 가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소중한 기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학 생활과 사회 생활을 통털어 그때처럼 한가지 일에 희망 하나만으로 다녔이 하나가 되어 달랐던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땀 흘릴 수 있는 무모함은 바로 대학생의 젊음과 패기가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나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엔 그 시절을 떠올리곤 한다. 그 시절의 무모함과 용기, 희망을 느끼면서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 여름 방학의 즐거움이나 재미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덤벼 보는 용기와 패기를 느껴보는 시간을 한번 정도 가져 보길 권한다.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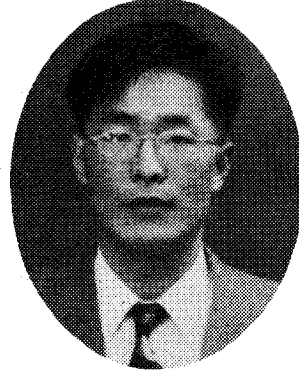
현태용
(생물 2)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방학이다. 문득 1학년 여름방학 때가 생각난다. 대학에 들어와 처음 맞이한 방학이었다.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방학을 맞이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어렵듯이나마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방학을 보냈던 것이다. 그 당시 신문배달을 했었는데, 내 나름대로 많은 것을 배

웠다고 생각한다. 과외를 가르치거나 공사 현장에서 며칠 일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배우기 위해서였다. 같이 신문배달을 하던 동료들이 생각한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벌고 있었지만, 모두들 열심히 살고 있었다. 그 삶의 진지한 모습들을 보고 나서, 내가 얼마나 안이하게 세상을 살아왔는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내가 결심했던 것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자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놀 때 제대로 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당시의 아르바이트는 내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방학 때는 무조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저마다 꿈꾸고 있는 것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다. 저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고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하던 되는 것이다.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만 할 과제인 것 같다.

강요됨이 없는 시간

창의적으로 보내길



권세은
(러시아어과 교수)

나의 대학시절에서는 방학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그 당시 무엇을 고민했는지는 기억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되지 않는다. 어쩌면 대학생들이 그렇게 방학의 연속으로 지나간 것 같다. 방학이라는 시간이 특별히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겨지지는 않았고, 단지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것 같다. 즉 자신을 개발(啓發)하는 노력보다는 범용성 인재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구비하고자 했다. 결과를 두려워 한 나머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했던 것이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할 것인가 라는 명제가 각 개인의 행복의 조건보다 우선시되는 사회이다. 21세기는 개인의 창의와 개성이 중요시되는 사회인 것이라 이해하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말살하는 방향으로 나는 대학생활을 보냈던 것이다. 오늘날 학생들의 사고는 문화의 다양성 속에 공동화(空洞化)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둘 것은 당연히되어야 하는 관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방학이 수업의 연장이라는 일반적 사고에서 벗어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다. 해야 할 것에 얽매이기보다는, 하고 싶은 것, 잘 할 수 있는 것을 더욱 더 연마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방학중에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개인의 개성이 특별히 오늘날에 와서 중요하게 된 것은 아니다. 개성과 창의, 도전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역사는 준비하는 자의 편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단지 사고의 틀을 바꾸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기가 힘든 것이다. 방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는 것이 대학생활에서 의미가 있을까라는 물음에는 정답은 없다. 단지 학생들은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세계화, 정보화 등등 일련의 개념들을 인지하고, 생활 속에서 감지해야 한다. 그리고 강요받은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스스로 즐겁게 찾아서 노력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중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방학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전공 공부보다 외국어 분야에 더 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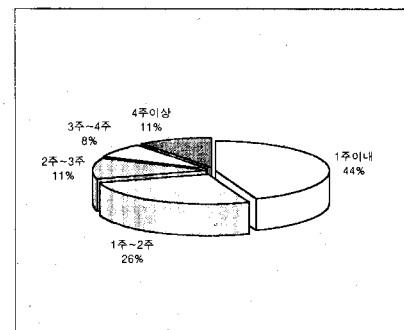
이번 방학동안 우리학교 학생들은 절반 이상이 주로 공부를 하며 보내겠다고 답을 했다. '방학중 학습계획'은 토익이나 토플등의 외국어 분야를 공부한다는 의견이 1백78명(40.0%)으로 전공관련공부 1백38명(30.6%)을 제치고 1위로 기록되었다는데 이는 취직시험에 있어서 학과성적보다 전반적인 외국어능력을 우상시하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또한 취업문턱에 서있는 학생들에게 '영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자격증취득(14.2%)과 전산분야 공부(12%)가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해 현대사회가 자격증 시대라는 것을 실감케

했다. '공부방식'에 관한 질문에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독학(48.9%)', '학원수강(40.9%)'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스터디그룹(5.5%)'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어 공부분야에도 개인주의 바람이 불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공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5-10만원(31.3%), 10-20만원(37.3%), 20-30만원(20%), 30-40만원(4%)으로 그리 많은 액수를 쓰지는 않고 있으며 공부비용 충당에 관한 질문에는 '아르바이트'(48%)와 '부모님께 의존'(40.9%)한다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용돈이 마련되면 어디에 지출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단연 '여행을 간다'(34.6%)가 으뜸으로 뽑혀 레저에 관한 관심이 학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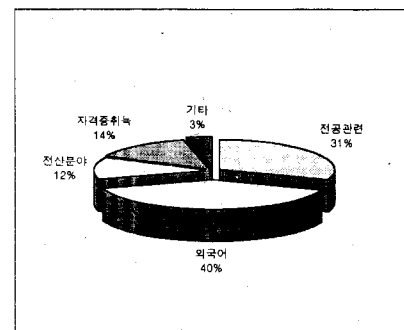
에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여행을 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있다'(83.7%)라는 질문이 '없다'(16.2%)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으며 '국내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곳'은 '제주도', '정동진'이 지목되었는데 이중 정동진은 SBS드라마 모래시계 방영이후의 인기가 반영되어 철도청에서 금요일 심야에 해돋이 관광열차의 운행 중에 있다. 또한 국외로는 유럽, 스위스, 캐나다가 선풍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는데 국내외 모두 대부분 자연경치가 좋은 곳으로의 선호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행기간은 1주 이내(36.8%)가 가장 많이 나타나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방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약

85%의 학생이 보통내지 불만족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만족스럽지 못한 방학'을 보낸 이유는 계획 부족, 의지가 약해서 등의 의견이 나왔는데 다수의 학생들이 무계획적이고 무절제하게 시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방학이 시작된다. 많은 학생들은 방학중 주로 공부, 특히 영어공부를 할 것이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과외를 할 것이다. 그리고 85%의 학생들은 방학이 끝나고 나서 항상 후회를 느껴왔다는 것들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이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알찬 방학의 구상을 시작할 때다.

(최현일기자)



5. 방학중 여행을 간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6. 방학중 어떤 공부를 주로 할 예정인가

* 1번 문항부터 4번 문항 도표는 12면 참조.

작은 정성이 경희의 밝은 미래를 예감합니다!

경희발전기금 참여 안내

'경희사랑은 경희사랑저금통에서부터'라는 경희사랑 실천운동의 하나로 시작된 경희사랑저금통 예금기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귀한 발전기금은 경희대학교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 대 상 : 경희가족(동문,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독지가, 기업, 기관, 단체 등
- 부형태 : 현금, 주식 및 유가증권, 기타자산(부동산, 기타), 도서자료, 실험실습기자재 등
- 일시 및 분할 납부 : 일시 또는 월납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단체별(예 : 직장/지회/동문회 등)
- 각 학과/대학(원)별 특정목적기부금으로 지정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예금주 : 경희대학교)

국민은행	010-01-0618-642	한일은행	070-084146-13-101
서울은행	17301-2710-209	외환은행	131-13-10336-8
농협	031-01-396711	평화은행	044-01-001-286
우체국	012336-0025556	경희사랑저금통기금(서울은행)	17308-9505323

- 발전기금 납부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약정서에 기재하신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
- 현금을 출원하시고자 할 때에는 희망하시는 금액을 일시에 출원하거나, 출원금액을 약정하여 원하시는 횟수로 분할하여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 분할의 경우 1회분 불입시 도장을 가지고 해당은행에 가서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우편환 또는 전신환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직접 찾아 뵙겠습니다.
- 급여공제(교직원에 한함) 가능
-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자산 출원은 개교50주년사업회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 유산상속이나 기타 소유 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헌납하실 수 있으며 모든 법적수속과 관련비용은 학교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희대학교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개교 50주년 기념사업회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Tel : 961-0931/2 Fax : 961-0906

세界的 명문대학 뒤에는 동문들의 작은 정성이 있었습니 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발전기금은 경희대학교가 역동의 시대에 대학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다가오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고급전문인력의 양성과 21세기 국가와 민족에게 봉사할 새로운 '경희인' 육성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9학기 등록금, 모교발전의 튼튼한 토대입니다.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

영원히 변치 않는 교적,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되돌려 줍시다.

경희발전기금! 이렇게 쓰입니다.

◆대강당 완공

◆개교 50주년 기념관 건립기금 조성

경희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1999년 개교50주년기념사업 기금을 위한 범 경희인의 후원 운동을 전개 합니다.

◆21세기 특별목적사업기금 조성

- 교육시설 확충(특수교육공간 건설 및 문화공간 확충)
- 학술연구/첨단과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우수교원 및 연구원 확충
- 종합 학술 정보 체계 수립/도서관 장서 구입
- 문화예술/창작/체육진흥기금
- 장학/각종 고시육성 후원기금